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음 2월 20일)

제15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16

도내 총선 후보자 47명 출사표

정치인 · 5~60대 '절반 차지'

(총선 후보자 최종 등록 명단)

*이름(정당·나이·학력·병역·전과·순)

◇전주갑
▲전희재(새누리·66·전북대·군필·없음) ▲
김윤덕(더민주·49·전북대·군필·1건) ▲김광
수(국민의당·58·전북대·군필·1건) ▲유중근
(무소속·72·뉴욕주립대·군필·1건)

◇전주을
▲정운천(새누리·62·고려대·군필·없음) ▲
최형재(더민주·52·전북대·군필·없음) ▲장
세환(국민의당·63·전북대·군필·없음) ▲성
치우(무소속·40·한국외대·군필·없음)

◇전주병
▲김성진(새누리·56·전북대·군필·없음) ▲
김성주(더민주·52·서울대·미필·2건) ▲정동
영(국민의당·62·서울대·군필·없음)

◇군사
▲새옹목(새누리·55·군산상고·군필·없음)
▲김운석(더민주·50·고려대·미필·2건) ▲김
관영(국민의당·46·서울대·미필·없음) ▲조
준호(정의당·57·군산제일고·군필·2건) ▲함
운경(무소속·52·서울대·미필·3건)

◇의산갑
▲김영일(새누리·60·한양대·군필·없음) ▲
이춘식(더민주·53·원광대·군필·없음) ▲이
한수(국민의당·56·원광대·군필·없음) ▲전
권희(민중·45·고려대·군필·2건) ▲황세연
(무소속·62·성균관대(종회)·군필·5건)

◇의산을
▲박종길(새누리·70·고려대·군필·1건) ▲
한병도(더민주·48·원광대·군필·1건) ▲조재
숙(국민의당·60·서울대·해당없음·없음) ▲이
권태(정의당·52·성공회대·미필·2건) ▲이
석권(무소속·52·전북대·군필·없음) ▲김지
수(무소속·40·원광대·군필·없음)

◇정읍·고창
▲하정(더민주·64·복합대학원·군필·없음)
▲유성엽(국민의당·56·서울대·군필·없음)
▲이강수(무소속·65·조선대·군필·없음)
▲김만균(무소속·60·한국외대·미필·없음)

◇김제·부안
▲김홍성(새누리·67·중앙대(종회)·군필·1
건) ▲김준진(더민주·63·경희대·군필·없음)
▲김종희(국민의당·50·원광대·미필·없음)
▲강상구(정의당·44·서울대·군필·없음)

◇남원·순창·임실
▲김용호(새누리·39·서울대·군필·1건) ▲
박희승(더민주·52·한양대·군필·없음) ▲이
용호(국민의당·56·서울대·군필·없음) ▲임
충천(민주당·47·방통대·미필·3건) ▲오은미
(민중·50·전주한일신학교·해당없음·없음)
▲김동원(무소속·63·경기대·군필·3건) ▲방
경재(무소속·60·남원고·군필·1건) ▲오철기
(무소속·47·전북대·군필·없음)

◇원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새누리·63·평창초·군필·없음) ▲
이호정(더민주·52·전북대·군필·없음) ▲임
정열(국민의당·56·전주대·미필·2건) ▲민경
선(무소속·70·동아대·군필·없음)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가장 많아

후보자들 중 40%는 전과기록

집회·시위에 관한것이 다수

후보자 17%, 병역 의무 미이행

4·13 20대 총선을 위해 전북에서 47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를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4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0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2명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회의원 6명, 상업과 변호사가 각각 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농·축산업, 의사·의사, 회사원·교육자, 출판업 무적이 각각 1명이며 기타 9명이다.

이들 후보들을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60세 미만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0세 12명, 40~50세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70세 이상 후보는 20명, 30~40세 미만 후보는 1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정치인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회의원 6명, 상업과 변호사가 각각 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농·축산업, 의사·의사, 회사원·교육자, 출판업 무적이 각각 1명이며 기타 9명이다.

학력별로 보면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0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2명이다.

▲후보자 40%... 전과기록

이들 후보자 40%인 19명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대 총선 30%보다 높으며, 18대 총선 18%보다 두 배를 웃돌고 있는 수치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명,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정의당 2명·민주당 1명·무소속 5명 등이다.

전과 종류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등 시국 사건 관련 전과가 10여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협박과 알선수재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무소속 황세연(의신갑) 후보다.

황 후보는 반공법 위반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상해 등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 특별시면과 특별복권 됐다.

이어 군산 무소속 험운경·남원임실순창 민

주당 임종천·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

▲병역미필자 8명

도내 등록 후보 17.0%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후보 47명 가운데 비대상자인 여성 후보 조배숙·오은미 후보 2명을 제외한 45명 중 병역면제 후보는 8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병역 면제자가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1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jan.ecc.go.kr>)를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을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본사 주최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성료

충남 천안 윤양구 학생, 최우수상

우수상 장유빈·인기상에 이동영



지난 26일 전주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제6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과 수상자들, 본사 조봉성 대표, 김관춘 전무이사, 김승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 있는 젊은 트로트가수 정해진의 특별무대와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프로미술사 지혜준씨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식상의 열기를 달궜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명훈 동아보건대학 마술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마술 경연은 누가 잘하는가 보다는 누가 실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대회의 모습인데, 이번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모든 참가자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소화해 시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며

"후배들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심사소감을 전했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김승곤 회장은 "이번 마술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평소 같고 뛰었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

한 자리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및 지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6회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는 (사)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이 주최했으며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전주마이신문화가 공동주관을 전주시, 동아보건대학교가 후원했다.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함성을 태권도원으로!
73억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2017 MUJU
WORLD CHAMPIONSHIPS
TAEKWONDO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2017년 6월 22일~30일 ■ 장소: 태권도원

muju